

탈당탈대탈단방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함)

- * 전자우편으로 성명
tdsc01@epochtimes.com
- * 동태망 인터넷으로 연결
<http://tuidang.epochtimes.com>
- * 탈당전화 : 001-416-361-9895,
001-702-873-1734
- * 탈당팩스 : 001-702-248-0599,
001-510-372-0176
- * 인터넷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탈당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다.

제시: 국제전화가 직접 통하지 않는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걸때 IP 전화로 해야
한다. (왕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입력하여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입력해야 한다.)
핸드폰IP 전화 (중국이동은 먼저 17951 를 입력해야
하고 련통은 먼저 17911 를 입력해야 하며
시티폰[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해야 한다.)



제 8 기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는
몇글자를 알려드립니다

탈당탈대탈단방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함)

- * 전자우편으로 성명
tdsc01@epochtimes.com
- * 동태망 인터넷으로 연결
<http://tuidang.epochtimes.com>
- * 탈당전화 : 001-416-361-9895,
001-702-873-1734
- * 탈당팩스 : 001-702-248-0599,
001-510-372-0176
- * 인터넷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탈당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다.

제시: 국제전화가 직접 통하지 않는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걸때 IP 전화로 해야
한다. (왕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입력하여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입력해야 한다.)
핸드폰IP 전화 (중국이동은 먼저 17951 를 입력해야
하고 련통은 먼저 17911 를 입력해야 하며
시티폰[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해야 한다.)



제 8 기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는
몇글자를 알려드립니다

한 뇨독증 환자가 건강해진 비결 3
 생명을 구하는 이 아홉글자를 기억하시라 ... 6
 선님이 생기니 건강을 회복하다 8
 40 년의 고질병이 완치되다..... 9
 칠순 노인이 대법을 믿어 분복을 받다 10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니
 암증이 간데없이 사라지다 12
 십리팔향에 전해진 이야기 14
 파룬따파의 신기함 15
 하늘이 내린 복..... 17
 병에 걸렸어도 순조롭게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18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여
 기사회생하다 19
 대법이 좋다는 읽으니 질병이 완치되다 21
 진언을 읽고 분복을 받은 두 할머니 23
 어린 외 손군이 구원되다 24
 《9 평》이 3700 만 3 톤 대조류를 일으키다 26
 대기원 정중성명 27
 탈당탈단탈대 방법 28

광대한 중국민중들이여: 공산당의 종말이 곧 닥쳐 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악한 당(마교)은 력사상 중생에 대하여 신불에 대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었으므로 신은 꼭 이 악마를 청산할 것이다.

만약 어느 날 신이 인류의 누구를 지시하여 공산당에 대해 청산할 때 꼭 그런 이른바 견정한 사악한 당원들을 역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중하게 성명한다. 모든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에 참여한 사람들은 빨리 탈퇴하여 사악의 기호를 지워버리라. 일단 누가 이 마교를 청산할 때 대기원에 저장한 기록은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을 탈퇴한다고 성명한 사람들을 위해 증거를 설 것이다.

천지자연의 법칙은 넓은 그물과 같아서 어떤 죄인도 빠져나가질 못하고 선악은 분명하며 고생은 끝이 있고 생사는 일념에 달렸다. 과거에 력사적으로 가장 사악한 마교에 기만당한 사람과 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 사람들이여, 조금만 늦추어도 지나가 버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

대 기 원

2005년 1월 12일

한 뇨독증 환자가 건강해진 비결 3
 생명을 구하는 이 아홉글자를 기억하시라 ... 6
 선님이 생기니 건강을 회복하다 8
 40 년의 고질병이 완치되다..... 9
 칠순 노인이 대법을 믿어 분복을 받다 10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니
 암증이 간데없이 사라지다 12
 십리팔향에 전해진 이야기 14
 파룬따파의 신기함 15
 하늘이 내린 복..... 17
 병에 걸렸어도 순조롭게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18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여
 기사회생하다 19
 대법이 좋다는 읽으니 질병이 완치되다 21
 진언을 읽고 분복을 받은 두 할머니 23
 어린 외 손군이 구원되다 24
 《9 평》이 3700 만 3 톤 대조류를 일으키다 26
 대기원 정중성명 27
 탈당탈단탈대 방법 28

광대한 중국민중들이여: 공산당의 종말이 곧 닥쳐 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악한 당(마교)은 력사상 중생에 대하여 신불에 대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었으므로 신은 꼭 이 악마를 청산할 것이다.

만약 어느 날 신이 인류의 누구를 지시하여 공산당에 대해 청산할 때 꼭 그런 이른바 견정한 사악한 당원들을 역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중하게 성명한다. 모든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에 참여한 사람들은 빨리 탈퇴하여 사악의 기호를 지워버리라. 일단 누가 이 마교를 청산할 때 대기원에 저장한 기록은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을 탈퇴한다고 성명한 사람들을 위해 증거를 설 것이다.

천지자연의 법칙은 넓은 그물과 같아서 어떤 죄인도 빠져나가질 못하고 선악은 분명하며 고생은 끝이 있고 생사는 일념에 달렸다. 과거에 력사적으로 가장 사악한 마교에 기만당한 사람과 사악에 의해 짐승의 기호를 새긴 사람들이여, 조금만 늦추어도 지나가 버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

대 기 원

2005년 1월 12일

《9 평》이 3700 만 탈당 대조류를 일으키다



《9 평공산당》은 중공사악의 본질을 심각하게 폭로하여 이미 중국에서 중공악당에서 탈퇴하는 강대한 조류를 형성하였다. 2008년 5월 28일까지 이미 3745만을 초과한 중국 민중들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는 중공 당, 정, 군 고층내의 당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 뇨독증 환자가 건강해진 <비결>

【명해망】 2007년 1월, 료녕성 강평현에 살고 있는 소홍(아명)이 신결석에 걸렸다. 강평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석은 으깨었지만 제때에 배출하지 못하였다. 그 후부터 소변에 피가 섞이고 호흡이 곤란하였으며 위가 불어서 먹으면 토하였다. 현 병원에서는 위병으로 치료하였는데 사나흘을 치료하여도 호전이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병원을 옮겨 심양의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결석은 꺼냈지만 검진 결과는 요독증으로써 가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심양의대에서는 약물로는 이미 치료할 수 없음을 알고 병원을 옮기라고 하였다.

소홍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족에서는 부덕불 도처에서 치료방법을 찾았다. 먼저 금진 병원으로 가서 문의하였으며 후에는 또 전국에서 유명한 진황도 신장병 전문 병원으로 찾아갔다. 신장은 이미 쇠약할 때로 쇠약해져 완전히 공능을 상실하였다. 한 주일에 세 차례 신장 투시를 해야 했는데 매 번에 500 원이었고 또 혈투를 하는데 매 번 1500 원이었다. 기감의 지수는 1200 을 초월하였다(정상적인 수치는 백이 좀 넘음). 이때

《9 평》이 3700 만 탈당 대조류를 일으키다



《9 평공산당》은 중공사악의 본질을 심각하게 폭로하여 이미 중국에서 중공악당에서 탈퇴하는 강대한 조류를 형성하였다. 2008년 5월 28일까지 이미 3745만을 초과한 중국 민중들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는 중공 당, 정, 군 고층내의 당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 뇨독증 환자가 건강해진 <비결>

【명해망】 2007년 1월, 료녕성 강평현에 살고 있는 소홍(아명)이 신결석에 걸렸다. 강평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석은 으깨었지만 제때에 배출하지 못하였다. 그 후부터 소변에 피가 섞이고 호흡이 곤란하였으며 위가 불어서 먹으면 토하였다. 현 병원에서는 위병으로 치료하였는데 사나흘을 치료하여도 호전이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병원을 옮겨 심양의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결석은 꺼냈지만 검진 결과는 요독증으로써 가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심양의대에서는 약물로는 이미 치료할 수 없음을 알고 병원을 옮기라고 하였다.

소홍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족에서는 부덕불 도처에서 치료방법을 찾았다. 먼저 금진 병원으로 가서 문의하였으며 후에는 또 전국에서 유명한 진황도 신장병 전문 병원으로 찾아갔다. 신장은 이미 쇠약할 때로 쇠약해져 완전히 공능을 상실하였다. 한 주일에 세 차례 신장 투시를 해야 했는데 매 번에 500 원이었고 또 혈투를 하는데 매 번 1500 원이었다. 기감의 지수는 1200 을 초월하였다(정상적인 수치는 백이 좀 넘음). 이때

소홍의 신체는 이미 극도로 허약해져 스스로 걸을 수 없었으며 집 식구들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인공배뇨관을 꽂아야 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가고 병세는 날 따라가중해졌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은 먹으면 토하였고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토하였는데 온몸이 불편하고 힘이 없었으며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기맥이 모자라 말소리도 아주 미약하였고 수시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가족에서는 정 안되면 신장의식 수술을 할 타산이었다. 그러나 신장이식수술의 성공확률이 높지 못하고 경제방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한 보통 농촌가정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엄청난 의료비용이었다. 지금까지 소홍의 집에서는 이미 5 만 여 원의 치료비를 소비하였다. 그러니 그녀의 출로는 어디에 있겠는가?!

날마다 병세가 악화되어가는 소홍을 바라보면서 소홍의 시어머니는 마음이 재가 되는 것만 같아 가만히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소홍의 고모가 이 정황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소홍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다. 《파룬따파만이 너를 구할 수 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를 경상적으로 묵념하거라. 성심으로 믿으면 꼭 경험할 것이다!》

4

소홍의 신체는 이미 극도로 허약해져 스스로 걸을 수 없었으며 집 식구들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인공배뇨관을 꽂아야 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가고 병세는 날 따라가중해졌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은 먹으면 토하였고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토하였는데 온몸이 불편하고 힘이 없었으며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기맥이 모자라 말소리도 아주 미약하였고 수시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가족에서는 정 안되면 신장의식 수술을 할 타산이었다. 그러나 신장이식수술의 성공확률이 높지 못하고 경제방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한 보통 농촌가정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엄청난 의료비용이었다. 지금까지 소홍의 집에서는 이미 5 만 여 원의 치료비를 소비하였다. 그러니 그녀의 출로는 어디에 있겠는가?!

날마다 병세가 악화되어가는 소홍을 바라보면서 소홍의 시어머니는 마음이 재가 되는 것만 같아 가만히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소홍의 고모가 이 정황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소홍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다. 《파룬따파만이 너를 구할 수 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를 경상적으로 묵념하거라. 성심으로 믿으면 꼭 경험할 것이다!》

4

저능아입니다. 안되겠습니다.》 하였다.

아이를 진 병원으로 안아온 후, 의사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였다. 때는 저녁이었는데 당직을 서는 몇몇 의사가 있었다. 한 의사가 아이를 만져보더니 《아직 숨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시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으면서 말하였다. 《빨리 침대를 잘 펴놓으시오. 며칠 입원하고 봅시다.》

이때 나는 이 어린 생명을 향하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를 읽었다. 아이는 당장에서 눈을 떴다. 나는 딸애에게 말하였다. 《우리 날마다 아이를 향하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를 읽자. 읽되 꼭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결과 며칠 후에 어린 외손자는 먹을 수 있었으며 주사도 맞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보름 만에 출원하였다. 당시 의사들마저도 대법이 그를 구했다고 말했다.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파룬따파가 이 어린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어린 외 손군은 신체가 건강하며 말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아주 귀엽다.

저와 저의 딸애는 충심으로 사부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5

저능아입니다. 안되겠습니다.》 하였다.

아이를 진 병원으로 안아온 후, 의사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였다. 때는 저녁이었는데 당직을 서는 몇몇 의사가 있었다. 한 의사가 아이를 만져보더니 《아직 숨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시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으면서 말하였다. 《빨리 침대를 잘 펴놓으시오. 며칠 입원하고 봅시다.》

이때 나는 이 어린 생명을 향하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를 읽었다. 아이는 당장에서 눈을 떴다. 나는 딸애에게 말하였다. 《우리 날마다 아이를 향하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를 읽자. 읽되 꼭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결과 며칠 후에 어린 외손자는 먹을 수 있었으며 주사도 맞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보름 만에 출원하였다. 당시 의사들마저도 대법이 그를 구했다고 말했다.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파룬따파가 이 어린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어린 외 손군은 신체가 건강하며 말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아주 귀엽다.

저와 저의 딸애는 충심으로 사부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5

밥 두 공기를 먹을 수 있으며 정신상태도 아주 좋아졌다.

신강구에는 또 한 80 여세에 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두 눈이 다만 미약한 광선을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생활상에서 억지다짐으로 자립하고 있었다. 한 파룬궁 학원이 그녀에게 대법의 진상을 이야기 해 주었다. 할머니는 진상을 듣고 나서 날마다 파룬궁 학원의 집으로 가서 리대사님의 설법녹음을 들었으며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날마다 가부좌를 련마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두 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사람과 일부 큰 물체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기색도 많이 달라졌다.



어린 외손군이 구원되다

그것은 작년 6월 11일이었다. 나의 딸애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몸무게는 4.8 근이고 양수를 먹어 울지 못하였다. 진 병원에서는 감당을 못하여 시 병원으로 보내어 구급을 하였다. 시 병원에서 사흘을 입원한 후, 의사는 《이 아이는 치료할 가망이 없습니다. 치료한다 해도

밥 두 공기를 먹을 수 있으며 정신상태도 아주 좋아졌다.

신강구에는 또 한 80 여세에 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두 눈이 다만 미약한 광선을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생활상에서 억지다짐으로 자립하고 있었다. 한 파룬궁 학원이 그녀에게 대법의 진상을 이야기 해 주었다. 할머니는 진상을 듣고 나서 날마다 파룬궁 학원의 집으로 가서 리대사님의 설법녹음을 들었으며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날마다 가부좌를 련마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두 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사람과 일부 큰 물체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기색도 많이 달라졌다.



어린 외손군이 구원되다

그것은 작년 6월 11일이었다. 나의 딸애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몸무게는 4.8 근이고 양수를 먹어 울지 못하였다. 진 병원에서는 감당을 못하여 시 병원으로 보내어 구급을 하였다. 시 병원에서 사흘을 입원한 후, 의사는 《이 아이는 치료할 가망이 없습니다. 치료한다 해도

그리고 그녀에게 한 백혈병 환자가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고 병이 나은 사례를 이야기 해 주었다. 소흥과 남편은 벌써 대법의 진상을 알고 있었고 삼퇴(탈당, 탈단, 탈대)성명을 발표 하였었다. 전화를 놓고 소흥은 남편에게 말하였다. 《고모가 그 두 마디를 읽으라고 해요, 우리 읽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읽기 시작하였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그들은 끊임없이 읽었으며 한번 또 한번 읽었다……

하루, 이틀, 사흘……점차적으로 소흥은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몸에서도 힘이 솟구쳤으며 온몸이 불편한 증상도 사라졌다. 음식을 먹으면 더는 토하지 않았다. 다시 투시 검사를 해보니 기감의 지수가 1200 으로부터 800 으로 내려갔으며 점차적으로 700, 600……줄곧 100 까지 내려갔고 번마다 좋아졌으며 신장도 공능을 회복하였다. 일체가 모두 좋아졌다. 눈앞에서 발생한 진실한 사실에 가족의 기쁨은 이루 다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요독증---오늘까지 세인들로 하여금 공포로 떨게 하던 병이 소흥이 성심성의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음으로 하여 패배하여 물러갔고 완전히 소실 되었다! 진황도의 이 유명한 신장병 전문병원의 의사들 마저도 참으로

그리고 그녀에게 한 백혈병 환자가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고 병이 나은 사례를 이야기 해 주었다. 소흥과 남편은 벌써 대법의 진상을 알고 있었고 삼퇴(탈당, 탈단, 탈대)성명을 발표 하였었다. 전화를 놓고 소흥은 남편에게 말하였다. 《고모가 그 두 마디를 읽으라고 해요, 우리 읽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읽기 시작하였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그들은 끊임없이 읽었으며 한번 또 한번 읽었다……

하루, 이틀, 사흘……점차적으로 소흥은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몸에서도 힘이 솟구쳤으며 온몸이 불편한 증상도 사라졌다. 음식을 먹으면 더는 토하지 않았다. 다시 투시 검사를 해보니 기감의 지수가 1200 으로부터 800 으로 내려갔으며 점차적으로 700, 600……줄곧 100 까지 내려갔고 번마다 좋아졌으며 신장도 공능을 회복하였다. 일체가 모두 좋아졌다. 눈앞에서 발생한 진실한 사실에 가족의 기쁨은 이루 다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요독증---오늘까지 세인들로 하여금 공포로 떨게 하던 병이 소흥이 성심성의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음으로 하여 패배하여 물러갔고 완전히 소실 되었다! 진황도의 이 유명한 신장병 전문병원의 의사들 마저도 참으로

신기하고 불가사의하다고 여겼다.

대법의 진상을 알고 중공약당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고 성성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성인은 좋다》를 읽는 것이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비결이다!



생명을 구하는 이 아홉글자를 기억하시라

나는 리신(가명)이라고 부르며 하북성 진황도현에 사는 농민이다. 금년에 40 여세이고 두 어린애의 어머니이다. 몇 년 전에 나는 집 식구와 화를 내고 나서 묘지로 달려가 통곡을 하다가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그때로부터 나의 몸에는 부체가 붙었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울고 불고 하였다. 장작을 태우고 옷을 태우고 하면서 정신이 똑똑하지 못하였고 생활상에서 자립하지 못하여 집은 부산하기 짝이 없었다. 외지로 가서 사람을 찾아 물어보았더니 귀신이 붙었다고 하였다. 병이 발작하기만 하면 가족에서는 나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이렇게 병은 몇 년을 끌면서 줄곧 낫지 않았다.

자외선 치료를 받고 반달 후에 다시 재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재검사를 할 때보니 이미 몽땅 완치되었다. 며느리가 줄곧 《파룬따파는 좋다, 진성인은 좋다》를 묵념하고 진상자료를 보고 사부님의 설법을 들었기에 돈도 팔지 않고 병이 완전히 나왔다.

진언을 읽고 분복을 받은 두 할머니

호북성 송자시 신강구에는 50 여세에 나는 한 아주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신체가 허약하여 날마다 밥 몇 숟밖에 들지 못하여 강박으로 물을 많이 마셨다. 아주머니의 두 신장에는 모두 결석이 있었는데 신장 하나를 치료하는 데만 만여 원의 돈을 썼다. 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 다른 한 신장은 치료하지 않았기에 수시로 아팠다. 한 파룬궁 학원이 이러한 아주머니를 보고 그녀에게 파룬궁의 신기함을 이야기 해 주고 사람은 응당 진, 선, 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주었다. 아주머니는 듣고 나서 확고하게 믿고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성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그 후부터 신체는 날마다 좋아졌고 신결석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지금은 하루에

신기하고 불가사의하다고 여겼다.

대법의 진상을 알고 중공약당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고 성성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성인은 좋다》를 읽는 것이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비결이다!



생명을 구하는 이 아홉글자를 기억하시라

나는 리신(가명)이라고 부르며 하북성 진황도현에 사는 농민이다. 금년에 40 여세이고 두 어린애의 어머니이다. 몇 년 전에 나는 집 식구와 화를 내고 나서 묘지로 달려가 통곡을 하다가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그때로부터 나의 몸에는 부체가 붙었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울고 불고 하였다. 장작을 태우고 옷을 태우고 하면서 정신이 똑똑하지 못하였고 생활상에서 자립하지 못하여 집은 부산하기 짝이 없었다. 외지로 가서 사람을 찾아 물어보았더니 귀신이 붙었다고 하였다. 병이 발작하기만 하면 가족에서는 나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이렇게 병은 몇 년을 끌면서 줄곧 낫지 않았다.

자외선 치료를 받고 반달 후에 다시 재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재검사를 할 때보니 이미 몽땅 완치되었다. 며느리가 줄곧 《파룬따파는 좋다, 진성인은 좋다》를 묵념하고 진상자료를 보고 사부님의 설법을 들었기에 돈도 팔지 않고 병이 완전히 나왔다.

진언을 읽고 분복을 받은 두 할머니

호북성 송자시 신강구에는 50 여세에 나는 한 아주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신체가 허약하여 날마다 밥 몇 숟밖에 들지 못하여 강박으로 물을 많이 마셨다. 아주머니의 두 신장에는 모두 결석이 있었는데 신장 하나를 치료하는 데만 만여 원의 돈을 썼다. 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 다른 한 신장은 치료하지 않았기에 수시로 아팠다. 한 파룬궁 학원이 이러한 아주머니를 보고 그녀에게 파룬궁의 신기함을 이야기 해 주고 사람은 응당 진, 선, 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주었다. 아주머니는 듣고 나서 확고하게 믿고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성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그 후부터 신체는 날마다 좋아졌고 신결석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지금은 하루에

올해 정월 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아래 몸에 작은 두드러기가 가득 돋아 아주 괴롭다고 하였다. 그녀는 한편으로 울면서 무슨 원인으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하지 말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면 꼭 나을거요. 작년에 큰 누나가 발을 접질렀는데 툭툭 붓겨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녁에 아파서 한숨도 자지 못하다가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더니 읽다가 잠이 들었다오, 이튿날 아침에 깨어나니 아프지 않더라오. 그러니 자네도 읽어보오.》 하고 말해주었다.

며느리는 아주 열심히 읽었다. 이튿날에는 호전이 보였으며 사흘날에는 괴롭지도 불편하지 않고 두드러기도 적어졌다. 닷새 되는 날, 며느리가 보정병원에 가서 감사한 결과 의사는 성병으로 확진하고 원인은 목욕을 하면서 전염된 것이라고 하였다. 적어도 두 달 동안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한대에 60 원이며 많은 사람들은 반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올해 정월 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아래 몸에 작은 두드러기가 가득 돋아 아주 괴롭다고 하였다. 그녀는 한편으로 울면서 무슨 원인으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하지 말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면 꼭 나을거요. 작년에 큰 누나가 발을 접질렀는데 툭툭 붓겨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녁에 아파서 한숨도 자지 못하다가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더니 읽다가 잠이 들었다오, 이튿날 아침에 깨어나니 아프지 않더라오. 그러니 자네도 읽어보오.》 하고 말해주었다.

며느리는 아주 열심히 읽었다. 이튿날에는 호전이 보였으며 사흘날에는 괴롭지도 불편하지 않고 두드러기도 적어졌다. 닷새 되는 날, 며느리가 보정병원에 가서 감사한 결과 의사는 성병으로 확진하고 원인은 목욕을 하면서 전염된 것이라고 하였다. 적어도 두 달 동안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한대에 60 원이며 많은 사람들은 반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2006년, 나의 어머니가 파룬궁 학원이 배포한 진상자료와 대법진상 호신부 한 장을 얻게 되었다. 나는 정신이 똑똑할 때 진상자료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읽고 나서 나는 《천안문 분신 사건》은 중공이 로백성을 기편하는 거짓말이고 파룬궁에 대한 모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대법을 믿으면 분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날마다 대법진상 호신부를 몸에 지니고 다녔고 날마다 몇 번씩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결과 기적이 나타났다. 나는 다시는 병이 재발하지 않았다. 때로 발작할 기미가 보이면 나는 재빨리 두 손을 합장하고 십분 동안 묵념하였다. 그러면 병은 다시 발작하지 않았다. 석 달 후, 나의 병은 철저히 나았다. 나는 가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밭에 나가 농사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온 집 식구들은 모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참으로 하늘의 법은 백 가지 사악을 물리칠 수 있다. 아홉 글자가 몇 년간이나 고통스럽던 나의 운명을 개변시켰다. 내가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는 묵념하여 질병이 간데없이 사라진 소식은 재빨리 온 마을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모두 파룬궁이 참으로 신기하다고

2006년, 나의 어머니가 파룬궁 학원이 배포한 진상자료와 대법진상 호신부 한 장을 얻게 되었다. 나는 정신이 똑똑할 때 진상자료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읽고 나서 나는 《천안문 분신 사건》은 중공이 로백성을 기편하는 거짓말이고 파룬궁에 대한 모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대법을 믿으면 분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날마다 대법진상 호신부를 몸에 지니고 다녔고 날마다 몇 번씩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결과 기적이 나타났다. 나는 다시는 병이 재발하지 않았다. 때로 발작할 기미가 보이면 나는 재빨리 두 손을 합장하고 십분 동안 묵념하였다. 그러면 병은 다시 발작하지 않았다. 석 달 후, 나의 병은 철저히 나았다. 나는 가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밭에 나가 농사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온 집 식구들은 모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참으로 하늘의 법은 백 가지 사악을 물리칠 수 있다. 아홉 글자가 몇 년간이나 고통스럽던 나의 운명을 개변시켰다. 내가 성심으로 대법이 좋다는 묵념하여 질병이 간데없이 사라진 소식은 재빨리 온 마을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모두 파룬궁이 참으로 신기하다고

감탄하며 많은 사람들이 대법이 좋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나와 나의 가족은 모두 파룬궁에 감사를 드리며 대법 사부님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 우리 온 집 식구는 모두 사당의 일체 부속조직에서 탈퇴하였다. 소유의 선량한 로백성들은 재빨리 각성하여 공산악당의 텔레비전에서의 일체 거짓말을 다시는 듣지 말고 빨리 3 퇴(탈당, 탈단, 탈대)를 선택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아홉 글자를 기억하시라!



선님이 생기니 건강을 회복하다

사천성 금양지구에는 78 세에 나는 한 퇴직 노간부가 있다. 그의 마누라는 파룬궁 학원인데 평상시에 진상을 이야기 하면 그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007년 12월 24일 저녁, 갑자기 왼쪽 반신이 불편하고 면상이 바르지 못하여 즉시 병원으로 모셔갔다. 진찰결과 혈압이 100-180 이고 두부에 세 곳이 출혈하였다. 병이 발작할 때 그의

감탄하며 많은 사람들이 대법이 좋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나와 나의 가족은 모두 파룬궁에 감사를 드리며 대법 사부님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 우리 온 집 식구는 모두 사당의 일체 부속조직에서 탈퇴하였다. 소유의 선량한 로백성들은 재빨리 각성하여 공산악당의 텔레비전에서의 일체 거짓말을 다시는 듣지 말고 빨리 3 퇴(탈당, 탈단, 탈대)를 선택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아홉 글자를 기억하시라!



선님이 생기니 건강을 회복하다

사천성 금양지구에는 78 세에 나는 한 퇴직 노간부가 있다. 그의 마누라는 파룬궁 학원인데 평상시에 진상을 이야기 하면 그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007년 12월 24일 저녁, 갑자기 왼쪽 반신이 불편하고 면상이 바르지 못하여 즉시 병원으로 모셔갔다. 진찰결과 혈압이 100-180 이고 두부에 세 곳이 출혈하였다. 병이 발작할 때 그의

로 가족에게 일깨워주었다. 호흡을 정지하면 대뇌에 산소가 부족하여 뇌세포는 사망한다. 이렇게 엄중한 환자를 병원에서는 구급하여 성공한적이 없으며 구급이 성공하더라도 단만 식물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였다. 가족에서는 계속 구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아이와 함께 계속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리선생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날 오후, 환자는 호흡이 회복되고 의식을 되찾았다. 사흘날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는데 의식이 똑똑하고 대뇌기능이 정상하였다.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파룬궁의 진상을 모르는 세인들도 파룬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되었다. 모두들 파룬궁에 탄복했다고 말하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더욱 찬탄을 금치 못하였는데 이것은 의학사의 기적이라고 하였다.

대법이 좋다는 걸 읽으니 질병이 완치되다

한 파룬궁 학원의 며느리는 사악한 당의 선전에 독해되어 진상을 몰라 파룬궁을 저지하였다. 시어머니가 그녀와 진상을 말하라고 하면 그녀는 곧 《우리 집안일이나 얘기해요, 파룬궁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로 가족에게 일깨워주었다. 호흡을 정지하면 대뇌에 산소가 부족하여 뇌세포는 사망한다. 이렇게 엄중한 환자를 병원에서는 구급하여 성공한적이 없으며 구급이 성공하더라도 단만 식물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였다. 가족에서는 계속 구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아이와 함께 계속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리선생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날 오후, 환자는 호흡이 회복되고 의식을 되찾았다. 사흘날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는데 의식이 똑똑하고 대뇌기능이 정상하였다.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파룬궁의 진상을 모르는 세인들도 파룬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되었다. 모두들 파룬궁에 탄복했다고 말하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더욱 찬탄을 금치 못하였는데 이것은 의학사의 기적이라고 하였다.

대법이 좋다는 걸 읽으니 질병이 완치되다

한 파룬궁 학원의 며느리는 사악한 당의 선전에 독해되어 진상을 몰라 파룬궁을 저지하였다. 시어머니가 그녀와 진상을 말하라고 하면 그녀는 곧 《우리 집안일이나 얘기해요, 파룬궁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대법이 좋다고 알려주었다. 근래에 그는 갑자기 급성 질병에 걸려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다. 병원에 가서 40 분 동안 구급을 한 후, 호흡과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멎어 인공호흡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의사는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고 선고하고 가족더러 빨리 수의를 입히고 후사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알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그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었다. 그녀는 먼 거리 밖에서 병원의 아들에게 쉬임없이 소리쳤다. 《야야, 어머니와 함께 외치자.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리선생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녀는 아들이 꼭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자신과 함께 외친다고 믿었다.

바로 이렇게 반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환자의 심장이 반시간을 정지하고 또 다시 자동으로 박동을 회복하였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이는 순전히 기적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긴장한 구급상태로 들어갔다.

비록 병원에서 전력을 다해 구급하면서도 의사는 반복적



대법이 좋다고 알려주었다. 근래에 그는 갑자기 급성 질병에 걸려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다. 병원에 가서 40 분 동안 구급을 한 후, 호흡과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멎어 인공호흡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의사는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고 선고하고 가족더러 빨리 수의를 입히고 후사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알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그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었다. 그녀는 먼 거리 밖에서 병원의 아들에게 쉬임없이 소리쳤다. 《야야, 어머니와 함께 외치자.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리선생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녀는 아들이 꼭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자신과 함께 외친다고 믿었다.

바로 이렇게 반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환자의 심장이 반시간을 정지하고 또 다시 자동으로 박동을 회복하였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이는 순전히 기적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긴장한 구급상태로 들어갔다.

비록 병원에서 전력을 다해 구급하면서도 의사는 반복적



마누라는 그를 권고하여 파룬궁의 호신부를 걸도록 하였다. 입원기간에 마누라는 그더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성심으로 읽도록 하였다. 그는 마누라의 의견을 접수하고 성심성의로 묵념하였다. 과연 병세는 날마다 좋아졌고 단 옛새를 입원하고 나서 퇴원하였다.

지금 그의 신체는 전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기적이고 불가사이한 일이라고 여긴다. 그는 대법사부님이 그를 구원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40년의 고질병이 완치되다

하북 당산 란남현의 촌민 리 할아버지는 금년에 77 세이다. 그는 40 여년전에 정맥골장병에 걸렸는데 오래도록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다리는 염증으로 굵아 들었다. 엄중할 때면 장기적으로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였다. 두 다리는 무릎으로부터 발등에 이르기까지 살거죽이 전부 짓물렀으며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였고 피물이 쉼새 없이 흘러내렸다. 밤이면 피물이 이불을 적실 가봐 두 다리에 비닐을 감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몇 십 년동안 큰 병원이란 큰 병원은 다 찾아 다녔고 중서의약과 밀방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

마누라는 그를 권고하여 파룬궁의 호신부를 걸도록 하였다. 입원기간에 마누라는 그더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성심으로 읽도록 하였다. 그는 마누라의 의견을 접수하고 성심성의로 묵념하였다. 과연 병세는 날마다 좋아졌고 단 옛새를 입원하고 나서 퇴원하였다.

지금 그의 신체는 전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기적이고 불가사이한 일이라고 여긴다. 그는 대법사부님이 그를 구원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40년의 고질병이 완치되다

하북 당산 란남현의 촌민 리 할아버지는 금년에 77 세이다. 그는 40 여년전에 정맥골장병에 걸렸는데 오래도록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다리는 염증으로 굵아 들었다. 엄중할 때면 장기적으로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였다. 두 다리는 무릎으로부터 발등에 이르기까지 살거죽이 전부 짓물렀으며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였고 피물이 쉼새 없이 흘러내렸다. 밤이면 피물이 이불을 적실 가봐 두 다리에 비닐을 감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몇 십 년동안 큰 병원이란 큰 병원은 다 찾아 다녔고 중서의약과 밀방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

었고 고통스럽기 그지 없었다. 때로 리 할아버지는 통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한 마을에 사는 파룬궁 학원이 리 할아버지에게 진상을 이야기 하고 그에게 《파룬따파는 좋다》고 쓴 호신부를 주었다. 처음에 리 할아버지는 믿지 않았지만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때에야 대법학원이 준 호신부가 생각났다. 읽어보니 과연 통증이 경감되었다. 그는 신심이 생겨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기 시작하였다. 열흘 후, 리 할아버지의 꿈아 들어가던 두 다리가 완전히 아물었다. 40여 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히던 완고한 질병이 이렇게 신기하게 완치되었다.

지금 리 할아버지는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한다. 그는 사람만 만나면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 한다. 온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리 할아버지의 몸에서 발생한 신기한 이야기를 견증하고 분분히 파룬궁 학원에게서 대법진상 호신부를 요구하였다.



철순 노인이 대법을 믿어 분복을 받다

광동성의 정 할아버지는 금년에 70 세이고

었고 고통스럽기 그지 없었다. 때로 리 할아버지는 통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한 마을에 사는 파룬궁 학원이 리 할아버지에게 진상을 이야기 하고 그에게 《파룬따파는 좋다》고 쓴 호신부를 주었다. 처음에 리 할아버지는 믿지 않았지만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때에야 대법학원이 준 호신부가 생각났다. 읽어보니 과연 통증이 경감되었다. 그는 신심이 생겨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기 시작하였다. 열흘 후, 리 할아버지의 꿈아 들어가던 두 다리가 완전히 아물었다. 40여 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히던 완고한 질병이 이렇게 신기하게 완치되었다.

지금 리 할아버지는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한다. 그는 사람만 만나면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 한다. 온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리 할아버지의 몸에서 발생한 신기한 이야기를 견증하고 분분히 파룬궁 학원에게서 대법진상 호신부를 요구하였다.



철순 노인이 대법을 믿어 분복을 받다

광동성의 정 할아버지는 금년에 70 세이고

붐비고 있었다. 듣건대 기차에 오르면 사람이 붐비어 식품 공급도 따라가지 못한다는데 춥고 배가 고파서 병에 걸린 허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밀려오는 인파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조급한 마음으로 줄곧 울었다. 기차에서 위험이 발생할 가 멀리 고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방도를 구하였다.

공교롭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법으로, 그녀와 남편이 전화통화를 할 때 한 파룬궁 학원이 옆에서 듣게 되었다. 마음씨 고운 파룬궁 학원은 그녀의 남편더러 그녀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흥한 일도 길하고 난에 부딪쳐도 일이 순조롭게 된다고 알려주라고 하였다. 그녀는 듣고 나서 날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으며 짬만 나면 읽었다. 과연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기차에 오르자마자 자리를 찾았으며 병도 나았고 순조롭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여 기사회생하다

섬서성 모시에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줄곧 대법이 좋다는 것을 믿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붐비고 있었다. 듣건대 기차에 오르면 사람이 붐비어 식품 공급도 따라가지 못한다는데 춥고 배가 고파서 병에 걸린 허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밀려오는 인파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조급한 마음으로 줄곧 울었다. 기차에서 위험이 발생할 가 멀리 고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방도를 구하였다.

공교롭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법으로, 그녀와 남편이 전화통화를 할 때 한 파룬궁 학원이 옆에서 듣게 되었다. 마음씨 고운 파룬궁 학원은 그녀의 남편더러 그녀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흥한 일도 길하고 난에 부딪쳐도 일이 순조롭게 된다고 알려주라고 하였다. 그녀는 듣고 나서 날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으며 짬만 나면 읽었다. 과연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기차에 오르자마자 자리를 찾았으며 병도 나았고 순조롭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파룬따파는 좋다》를 묵념하여 기사회생하다

섬서성 모시에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줄곧 대법이 좋다는 것을 믿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치의사도 영문을 몰라 당시의 검사결과는 가상이라고 하였다. 내외는 기빠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어찌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에서 천사(天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파룬따파의 신기를 경력하고 나서 소백은 특별히 파룬궁 학원을 찾아와 이 일을 글로 써내도록 하였다. 그는 충심으로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 드리고 대법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병에 걸렸어도 손조롭게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이것은 호북성 무혈시에서 외지로 일하러 갔던 노동자 청년들 속에서 발생한 진실한 이야기이다.

2007년 음력 새해가 다가올 무렵인 설달 20일, 호북성 무혈시 매춘진 시골에서 남방의 모시로 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색시가 기차표를 사놓고 집으로 돌아와 설을 쇠려고 하였다.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도 바로 이때 그녀의 고혈압 병이 또 도졌다. 이를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맥이 나지 않았다. 더구나 표는 좌석이 없는 표였다. 표를 살 때 보니 기차역의 안팎이 망망한 인해였고 사람이 물샷틈없이

퇴직 로동자이다. 10 년전에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불수의 후유증을 남겨 평소에 길을 걸을 때면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생활상에서 아주 불편하였다.

그의 이웃에 살고 있는 파룬궁 학원은 경상적으로 그에게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파룬궁 학원들이 박해를 받은 진상을 이야기 하였으며 파룬궁의 호신부를 드렸다. 그리고 위험에 부딪치면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정 할아버지는 성실하고 마음이 선량한 분이다. 그의 당숙과 친 삼촌은 모두 무고하게 공산악당의 박해로 목숨을 잃었다. 정 할아버지 본인도 사당의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공산악당의 사람을 다스리는 수단인 참혹함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파룬궁 학원들이 받고 있는 박해에 대해 심심한 동정을 표시하였다. 두 삼촌이 참혹하게 죽은 사실을 이야기 할 때마다 그는 머리를 흔들고 한숨을 내쉬면서 내심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였다.

금년 음력 정월의 어느 하루 밤, 정 할아버지는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려다 조심하지 않아 한쪽 발이



주치의사도 영문을 몰라 당시의 검사결과는 가상이라고 하였다. 내외는 기빠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어찌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에서 천사(天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파룬따파의 신기를 경력하고 나서 소백은 특별히 파룬궁 학원을 찾아와 이 일을 글로 써내도록 하였다. 그는 충심으로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 드리고 대법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병에 걸렸어도 손조롭게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이것은 호북성 무혈시에서 외지로 일하러 갔던 노동자 청년들 속에서 발생한 진실한 이야기이다.

2007년 음력 새해가 다가올 무렵인 설달 20일, 호북성 무혈시 매춘진 시골에서 남방의 모시로 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색시가 기차표를 사놓고 집으로 돌아와 설을 쇠려고 하였다.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도 바로 이때 그녀의 고혈압 병이 또 도졌다. 이를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맥이 나지 않았다. 더구나 표는 좌석이 없는 표였다. 표를 살 때 보니 기차역의 안팎이 망망한 인해였고 사람이 물샷틈없이

퇴직 로동자이다. 10 년전에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불수의 후유증을 남겨 평소에 길을 걸을 때면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생활상에서 아주 불편하였다.

그의 이웃에 살고 있는 파룬궁 학원은 경상적으로 그에게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파룬궁 학원들이 박해를 받은 진상을 이야기 하였으며 파룬궁의 호신부를 드렸다. 그리고 위험에 부딪치면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정 할아버지는 성실하고 마음이 선량한 분이다. 그의 당숙과 친 삼촌은 모두 무고하게 공산악당의 박해로 목숨을 잃었다. 정 할아버지 본인도 사당의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공산악당의 사람을 다스리는 수단인 참혹함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파룬궁 학원들이 받고 있는 박해에 대해 심심한 동정을 표시하였다. 두 삼촌이 참혹하게 죽은 사실을 이야기 할 때마다 그는 머리를 흔들고 한숨을 내쉬면서 내심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였다.

금년 음력 정월의 어느 하루 밤, 정 할아버지는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려다 조심하지 않아 한쪽 발이



다른 한쪽 발의 발뒤축을 밟으면서 온 몸이 중심을 잃고 무겁게 바닥에 쓰러졌는데 눈앞에서는 불꽃이 튀겼다. 좀 지나 머리가 맑아진 다음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사지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마누라가 소리를 듣고 나왔지만 한참이나 애를 써도 체구가 큰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 할아버지는 파룬궁 학원이 한 말이 생각났다. 그는 큰 소리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몇 번을 읽은 후, 스스로 일어났다. 몸을 움직여 보니 별로 상한 곳은 없고 다만 손목이 시굴뿐이었는데 며칠이 안되어 다 나왔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그의 마누라는 눈이 휘둥그래질 지경으로 감격하였다.

후에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나에게 파룬궁이 그를 구했다고 말하였다.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니 암증이 간데없이 사라지다

나는 산둥 수광의 파룬궁 학원이다. 장모는 수련을 하지 않는데 금년에 78 세이다. 어제 장모는 나에게 그녀를 만분 격동시킨 일을 이야기 하였다.

설전부터 장모는 위가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12

다른 한쪽 발의 발뒤축을 밟으면서 온 몸이 중심을 잃고 무겁게 바닥에 쓰러졌는데 눈앞에서는 불꽃이 튀겼다. 좀 지나 머리가 맑아진 다음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사지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마누라가 소리를 듣고 나왔지만 한참이나 애를 써도 체구가 큰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 할아버지는 파룬궁 학원이 한 말이 생각났다. 그는 큰 소리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몇 번을 읽은 후, 스스로 일어났다. 몸을 움직여 보니 별로 상한 곳은 없고 다만 손목이 시굴뿐이었는데 며칠이 안되어 다 나왔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그의 마누라는 눈이 휘둥그래질 지경으로 감격하였다.

후에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나에게 파룬궁이 그를 구했다고 말하였다.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니 암증이 간데없이 사라지다

나는 산둥 수광의 파룬궁 학원이다. 장모는 수련을 하지 않는데 금년에 78 세이다. 어제 장모는 나에게 그녀를 만분 격동시킨 일을 이야기 하였다.

설전부터 장모는 위가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12

하늘이 내린 복

료녕성 의현 두도하향에는 소백이라고 부르는 청년농민이 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내 소진은 임신하였다. 시부속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에 커다란 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술을 하면 태아를 보존할 수 없고 수술하지 않으면 암으로 넘을 가능성이 있었다. 내외는 일시 방도가 서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두 사람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얼마 전에 한 파룬궁 학원이 소백에게 삼퇴를 권고하여 젊은이는 탈단하고 아내 소진은 탈대하였다. 파룬궁 학원은 또 그들에게 난에 부딪쳤을 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알려주고 꼭 신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내외는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10 월에 소진은 집에서 포동포동한 사내애를 순산하였다. 달이 차서 병원에 가 복진을 해보니 자궁의 혹이 사라졌다!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더니

17

하늘이 내린 복

료녕성 의현 두도하향에는 소백이라고 부르는 청년농민이 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내 소진은 임신하였다. 시부속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에 커다란 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술을 하면 태아를 보존할 수 없고 수술하지 않으면 암으로 넘을 가능성이 있었다. 내외는 일시 방도가 서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두 사람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얼마 전에 한 파룬궁 학원이 소백에게 삼퇴를 권고하여 젊은이는 탈단하고 아내 소진은 탈대하였다. 파룬궁 학원은 또 그들에게 난에 부딪쳤을 때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알려주고 꼭 신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내외는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10 월에 소진은 집에서 포동포동한 사내애를 순산하였다. 달이 차서 병원에 가 복진을 해보니 자궁의 혹이 사라졌다!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더니

17

으로 확진 하였다. 하루 낮, 하룻밤의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보이지 않고 온몸은 의연히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병세가 더욱 가중해진 감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숙모가 병실로 나를 보러 왔다. 숙모는 나와 나의 십여 명의 친인들더러 함께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신기하기도 한데 몇 분이 지나자 오른손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고 들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는 왼손도 움직여졌다. 옆에 있던 친척들은 모두 찬탄하였다.

숙모는 가기 전에 나에게 《파룬따파는 좋다》고 쓴 호신부를 주었다. 그러면서 성심성의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꼭 기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과연 오후가 되자 발이 움직였으며 힘이 나고 천천히 들 수 있었다. 이튿날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파룬따파는 참으로 신기하여 읽자마자 효과를 보았고 나더러 일찍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이 글을 빌어 파룬따파에 감사드리고! 리대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으로 확진 하였다. 하루 낮, 하룻밤의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보이지 않고 온몸은 의연히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병세가 더욱 가중해진 감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숙모가 병실로 나를 보러 왔다. 숙모는 나와 나의 십여 명의 친인들더러 함께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신기하기도 한데 몇 분이 지나자 오른손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고 들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는 왼손도 움직여졌다. 옆에 있던 친척들은 모두 찬탄하였다.

숙모는 가기 전에 나에게 《파룬따파는 좋다》고 쓴 호신부를 주었다. 그러면서 성심성의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꼭 기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과연 오후가 되자 발이 움직였으며 힘이 나고 천천히 들 수 있었다. 이튿날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파룬따파는 참으로 신기하여 읽자마자 효과를 보았고 나더러 일찍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이 글을 빌어 파룬따파에 감사드리고! 리대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날이 갈수록 고통이 심하였다. 특별히 저녁이면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위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침대에 꿇어앉아 있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근간에 이르러서는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고 길을 가다가 정신을 잃을 때도 있었다. 노인은 자신이 위암에 걸렸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의 경제상황이 모두 긴장한 것을 생각하여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병을 속이기로 작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노인의 병세를 크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아내와 나의 말을 믿고 일이 없으면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2008년 청명절후의 이튿날 저녁, 비몽사몽간에 한 사람이 노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 사람이 손을 한번 휘젓자 그녀는 자신의 후두로부터 작은 배에 이르기까지 몽땅 갈라진 것을 보았다. 다시 손을 젓자 배는 다시 닫혔다. 노인의 마음속에서는 희열이 솟구쳤다.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노인은 삼시간에 자신의 암이 사라진 감을 느꼈다.

이튿날, 노인은 시험 삼아 생마늘 한 조각을 잡수어 보았다. 전에는 마늘 냄새만 맡아도 아팠는데 정말 아프지 않았다. 그 후부터 신체는

날이 갈수록 고통이 심하였다. 특별히 저녁이면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위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침대에 꿇어앉아 있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근간에 이르러서는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고 길을 가다가 정신을 잃을 때도 있었다. 노인은 자신이 위암에 걸렸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의 경제상황이 모두 긴장한 것을 생각하여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병을 속이기로 작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노인의 병세를 크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아내와 나의 말을 믿고 일이 없으면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2008년 청명절후의 이튿날 저녁, 비몽사몽간에 한 사람이 노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 사람이 손을 한번 휘젓자 그녀는 자신의 후두로부터 작은 배에 이르기까지 몽땅 갈라진 것을 보았다. 다시 손을 젓자 배는 다시 닫혔다. 노인의 마음속에서는 희열이 솟구쳤다.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노인은 삼시간에 자신의 암이 사라진 감을 느꼈다.

이튿날, 노인은 시험 삼아 생마늘 한 조각을 잡수어 보았다. 전에는 마늘 냄새만 맡아도 아팠는데 정말 아프지 않았다. 그 후부터 신체는

날마다 좋아졌다. 이 일이 발생한지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노인은 나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행운스럽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신념—《파룬따파는 좋다》를 견지하라고 당부하였다.

심리팔향에 전해진 이야기

2007년 8월 초사흘, 저녁 아홉 시 남짓하여 료녕성 무신시 청원현 남구전진 고립툰촌에 살고 있는 리봉군이 오토바이에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리봉군은 뿌리워 나가서 혼미상태에 빠졌다. 현 병원에 보내어 CT 검사를 한 결과 의사는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무순병원에 옮겨 관찰실에 며칠 입원하였지만 병세는 호전이 없었다. 의사는 치료한다 해도 식물인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나중에 심양시 성인민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하였는데 고열이 지속되고 이튿날에는 간장과 신장에 병이 발견되었다. 입원하여 여드레를 치료하였는데 전후로 의료비 몇 만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또 다른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돈도 다 써버린 터라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날마다 좋아졌다. 이 일이 발생한지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노인은 나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행운스럽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신념—《파룬따파는 좋다》를 견지하라고 당부하였다.

심리팔향에 전해진 이야기

2007년 8월 초사흘, 저녁 아홉 시 남짓하여 료녕성 무신시 청원현 남구전진 고립툰촌에 살고 있는 리봉군이 오토바이에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리봉군은 뿌리워 나가서 혼미상태에 빠졌다. 현 병원에 보내어 CT 검사를 한 결과 의사는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무순병원에 옮겨 관찰실에 며칠 입원하였지만 병세는 호전이 없었다. 의사는 치료한다 해도 식물인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나중에 심양시 성인민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하였는데 고열이 지속되고 이튿날에는 간장과 신장에 병이 발견되었다. 입원하여 여드레를 치료하였는데 전후로 의료비 몇 만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또 다른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돈도 다 써버린 터라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리봉군은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아무리 불려도 깨어나지 못하였다.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나흘의 약밖에 지니지 않았고 다 쓴 후에는 더 이상 약을 쓰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파룬궁 학원이었는데 날마다 그에게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어 주고 MP3 으로 사부님의 설법을 듣게 하였다. 얼마 후 리봉군은 날마다 호전되어 관도를 꽃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점차적으로 몸을 돌릴 수 있게 되더니 나중에는 앉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간단한 일을 하고 스스로 밥을 덤힐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리봉군은 생활상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파룬따파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그의 일은 심리팔향에 널리 알려졌으며 사람마다 대법이 좋다고 찬탄하고 있고 대법의 진상을 알게 된 사람도 날마다 많아지고 있다.

파룬따파의 신기함

2008년 3월 8일, 자정쯤 되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던 나는 갑자기 전신을 움직일 수 없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가족에서 발견한 후, 즉시 나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급진실에서 구급하였다. 의사는 저혈압

집으로 돌아온 후, 리봉군은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아무리 불려도 깨어나지 못하였다.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나흘의 약밖에 지니지 않았고 다 쓴 후에는 더 이상 약을 쓰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파룬궁 학원이었는데 날마다 그에게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어 주고 MP3 으로 사부님의 설법을 듣게 하였다. 얼마 후 리봉군은 날마다 호전되어 관도를 꽃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점차적으로 몸을 돌릴 수 있게 되더니 나중에는 앉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간단한 일을 하고 스스로 밥을 덤힐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리봉군은 생활상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파룬따파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그의 일은 심리팔향에 널리 알려졌으며 사람마다 대법이 좋다고 찬탄하고 있고 대법의 진상을 알게 된 사람도 날마다 많아지고 있다.

파룬따파의 신기함

2008년 3월 8일, 자정쯤 되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던 나는 갑자기 전신을 움직일 수 없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가족에서 발견한 후, 즉시 나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급진실에서 구급하였다. 의사는 저혈압